

제3회 쌍용 · 거손배 제과동호인 축구대회

8개팀 예선 리그 ... 우심회 접전 끝에 우승

〈취재 / 오형석 ohs@mbakery.co.kr〉

참가 선수단

A조 : 동그라미회, 일지회,

제과협회 광주지회, 천동

B조 : 동부지회, 엠마, 우심회, 한우물회

입상 및 개인상

우승 : 우심회

준우승 : 동그라미회

대회 최우수선수 : 김연욱(우심회)

최다 득점상 : 사광진(우심회)



제3회 쌍용 · 거손배 제과동호인 축구대회가 지난 4월 12일 뚝섬 체육공원에서 약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10시에 개막식을 가지고 예선 풀리그를 시작으로 열린 접전을 펼쳤다. 지난 2회 대회 때와 같은 8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지난 대회 참가팀인 나폴레옹팀이 참가하지 않은 대신 대한제과협회 광주지회에서 약 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함으로써 대회 규모를 전국화했다는 평을 들었다.

황사 바람이 심하게 부는 가운데 시작된 이번 대회는 A조와 B조로 나누어 모두 8개 팀이 예선 리그를 거치는 등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이 페어플레이를 펼쳐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오후 들어 황사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계속 진행된 이번 대회는 특히 광주지회팀의 참가로 동호인 축구대회 수준을 넘어서는 등 대회가 진행될수록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A조의 천동팀과 동그라미팀의 첫 게임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에서는 결승전에서 우심회와 동그라미팀이 만나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전후반 50분 경기를 득점 없이 비긴 가운데 치뤄진 승부차기에서 우심회가 동그라미팀을 3:2로 아슬아슬하게 이겨 대회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먼저 벌어진 준결승전에서는 한우물팀이 천동팀을 승부차기 끝에 5:4로 눌러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 제과동호인 축구대회가 제과인들의 친목과 화합의 한마당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최측의 정확한 심판 배정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회 운영이 상당히 노련해졌다는 평가 속에서 처음 출전한 광주지회팀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안정된 대회운영과 참가자들의 경기 수준도 더욱 높아가고 있어 제과인들의 '대동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대회였다는 평이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어졌다.

